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교내 학생회의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3년 전부터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연합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학교도 내년부터 이 체육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저는 연합 체육대회 참가에 찬성합니다. 먼저 연합 체육대회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두 학교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군무나 단체 에어로빅, 차전놀이 등은 교내 체육대회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면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내 체육대회는 ‘우리 반’을 중심으로 학급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면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학교 전체가 단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1: 저는 연합 체육대회 참가에 반대합니다.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날짜나 종목을 협의하고 참가 선수를 정할 때 각 학교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 학교 학생들이 모일 만한 넓은 장소를 빌리는 비용 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학교 학생이 모이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회자: 네, 그러면 이제 양측의 반론을 입론과 순서를 바꾸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부터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연합 체육대회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는데, 연합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기회는 많습니다. 이미 학교 간 스포츠클럽대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열 가지가 넘는 경기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려면 이러한 스포츠클럽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연합 체육대회를 진행할 경우,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물리적 마찰과 감정의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연합 체육대회의 기본 취지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찬성 2: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하려면 준비 기간이 길고 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기간은 오히려 협의 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비용을 세 학교가 분담하고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각 학교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높아졌고, 최근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참여로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 경찰서와 같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수월해서 더 안전한 행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토론 참가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토론 순서를 안내하여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주장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반대 2’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여 ‘찬성 1’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찬성 2’는 ‘반대 1’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2.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을 짚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우리 동아리에서는 7개 학교가 공동 개최한 영상제에 참가하였습니다. 한 장소에서 영상제를 열다 보니 장소 이용료를 분담해 우리 동아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험 부스에서 우리 동아리에 없는 다양한 영상 기기들을 직접 다루어 보고, 독특한 촬영 기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료 2]

두 대학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농구 경기 중에 선수들의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양 팀 선수들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지나친 몸싸움을 벌여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그 후 양 팀 관중들까지 흥분하여 상대 팀을 야유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워져서 결국 경기는 중단되었다.

입장	활용 방안
찬성	[자료1]은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①
찬성	[자료1]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②
찬성	[자료1]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③
반대	[자료2]는 물리적 마찰과 감정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반대	[자료2]는 과도한 경쟁으로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⑤

3.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 ①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하려면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 ② 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하는 학교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
- ③ 학교 간의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합 체육대회가 필요하다.
- ④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
- ⑤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4 ~ 5]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은 해: 선생님, ㉠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그래, 괜찮아. 무슨 고민 있니?

은 해: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과학 과정 중 어떤 과정이 저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 제가 특별히 글을 잘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제가 백일장에서 상도 받고 책도 많이 읽으니까 인문사회 과정을 선택하라고 하기도 해요. 또 수학을 잘하니까 자연과학 과정을 선택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과정 선택 때문에 고민이구나. 잘하는 것 한두 가지만 고려해서 과정 선택을 하기보다는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은 해: 저는 간호사도 되고 싶고, 청소년 상담사도 되고 싶어요.

선생님: ㉢ 너는 평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까 둘 다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호사를 희망하면 자연과학 과정을, 청소년 상담사를 희망하면 인문사회 과정을 선택하곤 하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둘 중에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넌 왜 간호사나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은 건데?

은 해: ㉣ 저는 원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해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척 언니가 환자들을 친절하게 돌봐주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간호사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 ㉤ 네 생각처럼 간호사가 어울릴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해. 하지만 적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저번에 동아리에서 해부 실험을 할 때 무서웠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간호사가 되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은 해: 아, 그렇긴 한데.....

선생님: 그래서 과정 선택을 할 때에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아.

은 해: 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교무실에서 나온 뒤)

서 영: 은혜야, 상담하면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나도 과정 선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은 해: _____

4. ㉠ ~ ㉤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자신과 상대방 의견의 일치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서영’의 말에 대한 ‘은혜’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재진술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듣는 공감적 듣기의 방법 중 하나이다.

- ① 너도 나랑 똑같네. 너도 선생님께 찾아가서 상담해 봐. 나처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네가 고민하는 이유는 뭘때? 선생님은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과정을 선택하라고 하셨어.
- ③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하고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과정 선택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게 있을 거야.
- ④ 너도 과정 선택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선생님께서는 과정을 선택할 때에는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적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셨어.
- ⑤ 나도 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아마 다른 친구들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있을 거야.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을 고려해서 과정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6 ~ 8] 다음은 ‘노인 평생교육’에 대해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인 평생교육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노인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비용 부담이 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수가 적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정부가 평생교육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노인 평생교육 담당 기관은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노인 평생교육은 노인 개인의 자아를 실현시켜 주는 한편 노인들 삶에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6. 다음은 윗글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생각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계획하기	학생의 생각
주제 설정하기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야겠어. ①
예상 독자 설정하기	정부와 노인 평생교육 담당 기관을 포함해야지. ②
글의 종류 결정하기	예상 독자를 설득하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설문으로 작성해야겠어. ③
내용 전개 구상하기	노인 평생교육의 의의를 밝히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④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며 마무리해야지. ⑤

7. 초고를 작성한 후 <보기>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보기>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설문 조사

1. 평생교육 참여율 (대상: 우리나라 성인)
2. 노인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주요 장애 요인 (대상: 우리나라 60세 이상)

(단위: %)

순위	원 인
1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3	나이가 많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4	교육 시설이 멀어서
5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몰라서

(나) 신문 기사

최근 평생교육 통계 조사에 의하면, 8만 6천여 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을 제외한 6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57.9%로 가장 많았고, 반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1.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신문

(다) 전문가 의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은퇴 후 재취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

- ① (가)-1을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② (가)-2를 활용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노인들이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을 둘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노인 평생교육이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넷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④ (가)-2와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8.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를 권유하는 홍보 문구를 작성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초고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의 효과 중 하나를 포함할 것.
 - 문답법을 활용할 것.

- ① 노인 평생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빨리 평생교육의 문을 두드리세요.
- ② 스스로의 한계를 거부하며 내딛는 발걸음의 끝에서 당신의 참모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평생교육이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 ③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평생교육에 참여해서 서로 활력을 주고받으며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불평만 하시나요? 시야를 넓혀 보면 평생교육의 더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⑤ 내 건강의 영양제가 올바른 식습관이라면 내 인생의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현재를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막스 셸러는 이전의 경험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창출한 개별적인 과학적 지식들만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철학적 인간학’을 탄생시켰다. 철학적 인간학은 경험과학적 연구 성과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체와 차별화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학문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셸러 이외에 헬무트 플레스너, 아놀드 겔렌 등이 있다.

㉠ 셸러는 동물학자 퀴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정신’ 작용의 하나인 ‘자아의식’에 의해 외부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도 대상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정신’ 작용이며, 이런 ‘자아의식’에 의해서 인간은 충동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를 반성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한편 플레스너는 생명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독립성이 없어 주변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식물과 달리, 독립성이 있는 인간과 동물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플레스너는 동물이 자신만을 중심으로 환경에 적응해 간다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탈중심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탈중심성’이라는 인간만의 특성으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항상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철학적 인간학의 또 다른 학자인 ㉡ 겔렌은 동물학자 포트만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본질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인간을 동물과 달리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나 자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핍된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며, 나아가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존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문화에 다시 영향을 받아 특정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문화의 한 형태인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의 영향으로 인간은 충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이 만든 제도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 타율적 삶을 감수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셸러는 인간이 ‘자아의식’을 통해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레스너는 인간이 ‘탈중심성’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겔렌은 인간이 여러 ‘행위’를 통해 결핍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차별화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이나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16.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이론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다양한 관점들을 절충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④ 세 이론의 우열을 가리며 특정 이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새로운 이론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며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의 연구 내용은 모두 경험과학적 지식과 무관하지 않다.
- ②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③ ㉠은 ㉡과 달리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④ ㉡은 ㉠과 달리 인간의 ‘자아의식’과 ‘행위’가 충동적 욕구의 결과임에 주목했다.
-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기에는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18. 플레스너와 <보기>의 ‘카시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카시러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은 바깥 세계를 받아들이는 ‘수용 체계’와 바깥 세계에 반응해 가는 ‘운동 체계’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바깥 세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두 체계 사이에 ‘상징 체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한 후 반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플레스너는 탈중심성의 유무를, ‘카시러’는 상징 체계의 유무를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보았다.
- ② 플레스너는 인간만이 환경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카시러’는 인간만이 환경에 여유를 두고 반응한다고 보았다.
- ③ 플레스너와 ‘카시러’는 모두 인간만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반응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플레스너와 ‘카시러’는 모두 동물은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후 반성적 사유를 한다고 보았다.
- ⑤ 플레스너와 ‘카시러’는 모두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19.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희수는 습관처럼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다. 희수가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유치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지켜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 순간 희수는 아이들보다도 못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날 이후부터 무단 횡단을 하지 않기 위해 교통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① 셸러의 입장에서는 희수가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무단 횡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의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셸러의 입장에서는 희수가 무단 횡단을 한 것과 아이들이 신호를 지킨 것의 차이는 ‘자아의식’의 존재 유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플레스너의 입장에서는 희수가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겔렌의 입장에서는 교통 규칙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인간들이 만든 사회적 제도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겔렌의 입장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이 교통 신호를 잘 지키는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문화에 다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그 가격을 해석하고 그 가격에 담겨 있는 의미를 평가해서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가격지각 과정이라 한다.

가보(A. Garbor)와 그레이저(C. Granger)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가격지각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들은 먼저, 설문 대상자들에게 특정 가격을 제시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 의사 여부를 조사했다. 구매한다는 대답이 나오면 다른 가격을 순차적으로 묻는 과정을 계속했고, 구매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 까닭이 가격이 비싸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싸서 그러한 것인지를 물었다. 그리하여 소비자들 수용할 수 있는 ‘하한 가격 한계’와 ‘상한 가격 한계’를 발견하였다.

하한 가격 한계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가 품질을 의심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 최저수용가격을 말하고, 상한 가격 한계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를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 최고수용가격을 말한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하한 가격 한계 위로 가격을 ㉢ 올리면, ㉣ 지나치게 낮은 가격 때문에 그 제품의 품질을 의심해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확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설문 대상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한 가격 한계 밑으로 가격을 내리면, ㉤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확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최저수용가격과 최고수용가격의 사이, 즉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 사이에 판매자가 제품을 팔 수 있는 최적가격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너무 비싸게도 너무 싸게도 느끼지 않아 해당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은 가격이 판매자가 제품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최적가격인 것이다.

한편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의 구매를 고려할 때, 그 제품의 가격이 높거나 낮다고 지각하는 것은 개인이 그 상품에 대해 자신의 기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현재 구매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준거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구매를 결정한다. 하지만 유사 제품에 대해 구매 경험이 없다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외적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의 구매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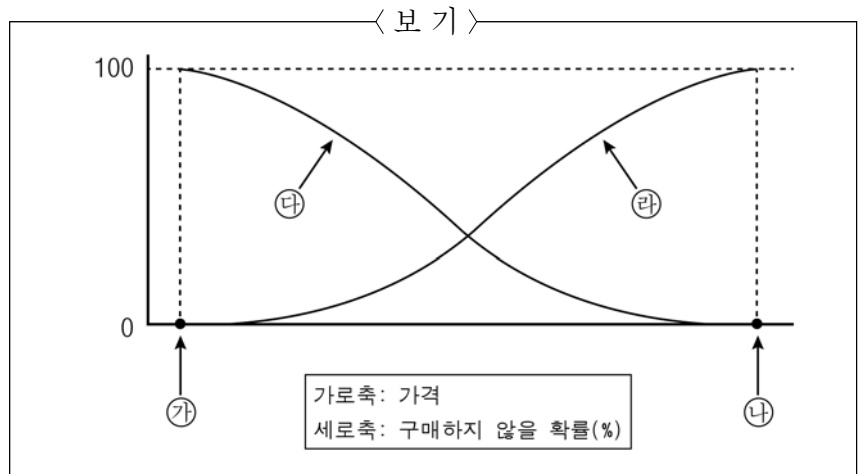
이때 전자는 내적준거가격을, 후자는 외적준거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의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내적준거가격이란 소비자가 경험한 정보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가격을 말하며 외적준거가격이란 특정 제품의 생산자 가격, 상점에서 제시하는 정상 가격, 혹은 경쟁사 가격 등의 새로운 가격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을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이 제시한 가격을 자신들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들 가격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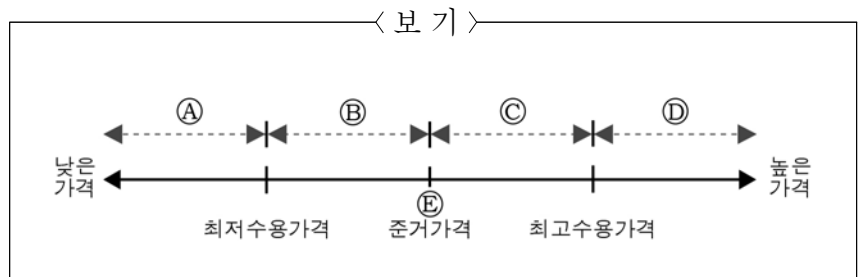
- ① 정상 가격의 변화 추이
- ② 하한 가격 한계의 개념
- ③ 소비자의 가격지각 과정
- ④ 내적준거가격 결정의 기준
- ⑤ 소비자에 대한 두 가지 인식

21. ㉠ ~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라 |
| ② | 가 | 나 | 라 | 다 |
| ③ | 나 | 가 | 다 | 라 |
| ④ | 나 | 가 | 라 | 다 |
| ⑤ | 나 | 라 | 다 | 가 |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을 의심할 수 있겠군.
- ② A에서는 최적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나 D에서는 최적가격이 형성될 수 없겠군.
- ③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은 B와 C 구간에서 형성되겠군.
- ④ D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이겠군.
- ⑤ 동일 물건에 대해 E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유사한 물건을 구매했던 과거 경험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겠군.

23.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손을 올려 거부 의사를 밝혔다.
- ② 명절 아침에 할아버지께 절을 올렸다.
- ③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호적에 올려야 한다.
- ④ 학교 주변에서는 차의 속력을 올려서는 안 된다.
- ⑤ 내년엔 결혼식을 올리려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틴아메리카의 미술은 모더니즘 미술을 받아들이면서도 독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 대표적인 화가가 콜롬비아의 페르난도 보테로이다. 그의 작품에는 형태의 터질 듯한 볼륨감과 물개성적인 인물, 형식을 벗어난 비례, 대상이 가진 고유의 색 등이 잘 ㉠ 구현(具現)되어 있다.

먼저 보테로의 그림에는 다른 작가의 작품과 확연히 ㉡ 구별(區別)되는 터질 듯한 형태의 볼륨감이 있다. 미술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강조한 그는 그것의 핵심요소로 볼륨감에 ㉢ 주목(注目)하였는데, 평면의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에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형태의 팽창이다. 즉 그는 그림에서 소재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팽창시킴으로써 볼륨감을 집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형태를 왜곡했기 때문에 보테로의 그림에서는 제목, 장식, 옷 등에서만 인물들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인물이 지닌 본래의 개성적 특징은 거의 생략되어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인물뿐 아니라 작품 속 대상들에게도 유사하게 ㉣ 적용(適用)되는데, 이렇게 작품 속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팽창시켜 볼륨감에 주목하도록 하여, 감상자는 작품 속 특정 대상에만 시선이 머물지 않고 그림 전체에 구현된 볼륨감을 감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테로는 그림을 그릴 때 사물과 인물 간의 비례, 인물과 인물 간의 비례, 배경과 인물 간의 비례 등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보다 큰 수박 조각, 남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여인, 인물과 비슷한 높이의 숲 등 실제의 세계와는 비례를 달리하여 ㉤ 구성(構成)함으로써 현실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가 구현하고 싶은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비례의 파괴로 인해 느껴지는 부조화에 대해 감상자는 보테로의 회화를 위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또한 보테로는 대상이 가진 고유의 색을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그림에 그림자가 표현되면, 그림자의 검은 색으로 인해 대상이 가진 고유의 색이 파괴되거나 모호하게 표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에 그림자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색칠한 면 위에 또 색을 칠함으로써 새롭게 칠한 색과 이전에 칠한 색이 중첩되게 하여 색을 더 견고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상의 고유한 색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보테로의 작품 중에는 거장들의 작품을 차용한 작품이 많다. 보테로가 거장의 작품을 차용한 이유는 그들의 권위나 명성을 끌어내리려 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작품을 차용함으로써 그들의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을 감상자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재창조한 작품을 통해 거장들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이 지닌 차이도 함께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테로는 인물들이 지닌 본래의 개성적 특징을 거의 생략하여 표현하였다.
- ② 보테로는 형태의 팽창을 통해 평면에 사물을 표현하는 제약을 극복하려 하였다.
- ③ 보테로는 감상자로 하여금 그림 전체에 구현된 볼륨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보테로는 캔버스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 속 인물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냈다.
- ⑤ 보테로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부조화는 감상자가 그의 작품을 위트로 받아들이게 하기도 한다.

25. <보기>의 ㉣는 ㉡를 차용한 그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안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 페르난도 보테로,
<아르놀피니 부부를 따라서>

- ① ㉡의 인물들을 ㉣처럼 팽창시켜 표현한 것은 그림을 통해 감각적 즐거움을 느끼게 하려는 보테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② ㉡의 모자를 ㉣에서 얼굴에 비해 과하게 크게 표현한 것은 현실적 비례를 표현하는 데 얽매이지 않으려는 보테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의 천정에 매달린 샹들리에를 ㉣처럼 단순하게 그린 것은 감상자의 시선이 그쪽에만 실리지 않게 하려는 보테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④ ㉡에서 남자 발밑에 보이는 그림자를 ㉣에서 표현하지 않은 것은 바닥이 가진 고유의 색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보테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에서 빛으로 인해 생긴 명암을 구현한 벽면을 ㉣에서 색을 덧칠하여 표현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한 보테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26. 윗글의 ‘보테로’와 <보기>의 ‘앤디 워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 앤디 워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차용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독창성에 도전하였다. 그는 이러한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작가의 권위를 빼앗고, 오리지널 작품의 절대적인 권위와 명성을 부정했다.

- ① 보테로는 앤디 워홀과 달리 차용한 작품과 자신의 작품과의 동일성을 강조하였겠군.
- ② 앤디 워홀은 보테로와 달리 거장의 작품이 지닌 권위를 부정하고자 하였겠군.
- ③ 보테로와 앤디 워홀은 모두 예술이 허구적 세계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겠군.
- ④ 보테로와 앤디 워홀은 모두 기존 미술 작품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겠군.
- ⑤ 보테로와 앤디 워홀은 모두 작품에 대한 반복적인 복제가 원본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았겠군.

27.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 ② ㉡: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 ③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④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 ⑤ ㉤: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뼈는 우리 몸을 지지하고 심장이나 뇌 등의 주요 장기를 보호하며 몸을 움직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뼈는 평생 동안 길이나 굵기가 변하는 동적인 조직이며 외부 환경에 따라 뼈의 단단한 정도가 바뀌기도 한다. 뼈를 이루고 있는 무기물과 뼈의 세포는 계속적으로 제거되고 다시 생성되는 교체 과정을 겪는데, 이러한 과정을 뼈의 재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뼈의 재구성은 뼈의 구조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일생 동안 일어난다. 그럼 뼈의 재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뼈의 재구성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에는 뼈모세포, 뼈세포, 뼈파괴세포가 있다. 뼈모세포는 뼈조직의 표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세포로 뼈바탕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뼈세포는 뼈모세포가 더 이상 뼈바탕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된 세포이고, 뼈파괴세포는 뼈모세포에 비해 크고 운동성이 있는 세포로 뼈바탕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풍부하다.

뼈의 재구성은 뼈바탕질의 교체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뼈바탕질이 파괴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뼈파괴세포는 재구성이 필요한 뼈바탕질로 이동한 후, 산과 단백질을 분해효소를 분비하여 뼈바탕질의 무기물과 아교섬유를 분해하며 뼈바탕질의 표면을 이동해 가면서 계속 뼈바탕질을 녹여 나간다. 뼈파괴세포가 뼈바탕질을 녹이며 지나간 자리로 주변에 있던 뼈모세포가 이동하여 분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뼈파괴세포가 분해한 무기물과 아교섬유 등을 이용하여 뼈바탕질을 새롭게 형성하고 강화하면서 재구성은 완료된다. 그리고 이렇게 뼈바탕질을 새롭게 생산하던 뼈모세포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새로운 뼈바탕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뼈세포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전의 뼈는 새롭게 보강되고 단단해진다.

한편 뼈의 재구성은 압력과 같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 만일 우주와 같이 중력이 낮은 공간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약해져서 뼈는 지구에 있을 때 받던 압력을 견딜 만큼 단단해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뼈바탕질을 새롭고 단단하게 교체하는 뼈모세포의 활동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뼈의 분해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뼈의 강도는 지구에서와는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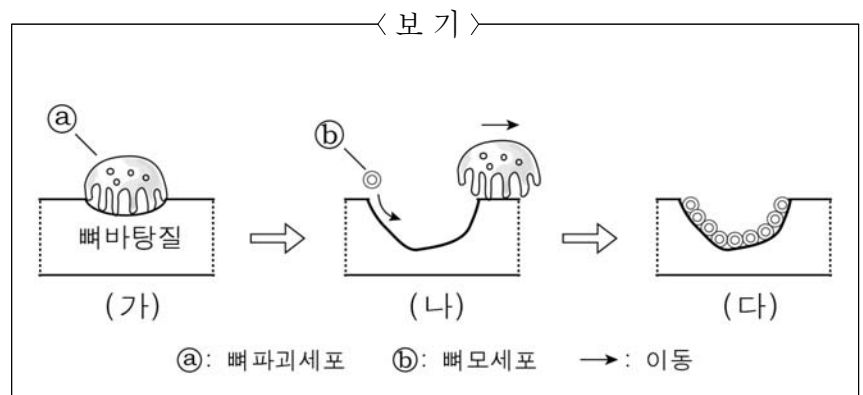
또 일반적으로 뼈의 재구성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데, 소아기부터 약 24세가 되는 시기까지는 뼈의 생성이 뼈의 파괴보다 빠르게 일어나 뼈의 양이 증가하고 뼈는 더 조밀하고 강해진다. 그 이후에는 뼈의 양과 밀도 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3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뼈의 파괴가 생성보다 조금씩 활발해지면서, 뼈의 밀도는 점차 감소되기 시작한다.

*뼈바탕질: 무기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석회화된 뼈의 바탕.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뼈의 재구성은 일생 동안 계속 일어난다.
- ② 뼈모세포는 뼈조직의 표면에 주로 위치한다.
- ③ 뼈의 단단한 정도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 ④ 뼈모세포, 뼈파괴세포는 뼈의 재구성에 관여한다.
- ⑤ 뼈의 밀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29. <보기>는 뼈의 재구성 과정 중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처럼 a가 뼈바탕질로 이동한 것은 뼈바탕질의 교체를 위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뼈바탕질이 녹았다면 a가 산과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b는 a가 이동한 후 그 자리로 이동하겠군.
- ④ (다)에서 b의 분열은 새로운 뼈바탕질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겠군.
- ⑤ (다)를 통해 뼈의 재구성이 완료되었다면 분열한 b 중 일부가 뼈세포가 되어 뼈바탕질을 생산하겠군.

30. <보기>는 ㉠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이다.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우주에서는 (㉡)의 활동이 (㉣)의 활동보다 줄어들어 뼈의 강도가 (㉤)해지겠군.

- | | ㉡ | ㉣ | ㉤ |
|---|-------|-------|---|
| ① | 뼈모세포 | 뼈파괴세포 | 약 |
| ② | 뼈모세포 | 뼈세포 | 약 |
| ③ | 뼈파괴세포 | 뼈모세포 | 강 |
| ④ | 뼈파괴세포 | 뼈세포 | 강 |
| ⑤ | 뼈세포 | 뼈파괴세포 | 약 |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朝鮮) 세종대왕(世宗大王) 때,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성은 백(白)이었고 이름은 상군(尙君)이었다. 부인 정씨(鄭氏)와 이십 년을 동거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어서 늘 슬퍼하였다. 명산대찰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 후, 그 덕택으로 기이한 꿈을 꾸곤 후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온유하며 문필이 자못 유려(流麗)하였다. 그의 부모 백상군 부부는 외아들을 천금인 양 애지중지하였고 이름을 선군(仙君)이라 지었다. 부부는 아들에게 알맞은 배필을 얻어서 슬하에 두고 재미를 보려고 널리 구혼을 하였으나 한 곳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항상 근심으로 지냈다.

이때 숙영 낭자도 [천상]에서 선군과 희롱한 죄로 [옥연동]에 귀양 와 있었는데, 선군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까닭에 자기와 천생연분(天生緣分)인 줄 모르고 다른 가문에 구혼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라. 낭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인간 세상에 귀양 와서 백년가약을 맺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낭군이 다른 가문에 구혼하면 우리의 천생연분은 속절없이 되리라.’

하며 슬퍼했다.

선군의 나이가 열여섯 살 되던 어떤 봄날, 선군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몸이 노곤하여 책상에 기대어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문득 녹의홍상으로 단장한 낭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 번 절하고 옆에 앉더니,

“낭군은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둘이 천생연분이 있기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하였다. 이에 선군은,

“나는 진세(塵世)의 속객(俗客)이요, 낭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어찌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하오?”

하고 의아하여 물었다. 그러자 낭자는,

[A] “낭군은 본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仙官)이셨는데, 요지연에서 저와 서로 희롱한 죄로 상제께서 인간 세상에 귀양을 보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연을 이루라 했나이다. 그런데 낭군께서는 어찌 이것을 모르시고 다른 가문에 구혼하려 하시나이까? 낭군은 저를 위해 삼 년만 기다려주시옵소서.”

선군이 깨어나 보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그러나 꿈속에서 본 낭자의 얼굴은 하늘을 날던 기러기가 부끄러워 땅에 떨어질 만큼 아름다웠으며, 조각달을 수놓은 듯한 자태는 천상의 밝은 달이 구름 속에서 막 솟아나는 듯했다. 선군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붉은 입술에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고 말하던 낭자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옥 같은 낭자의 얼굴이 눈에 삼삼했다.

선군이 꿈에 본 낭자를 잊지 못해 병드니,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네 병세를 보니 아무래도 이상하도다. 무엇 때문인지 숨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사실대로 말해 보거라.”

[B] “며칠 전 꿈에 옥 같은 낭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저는 월궁선녀인데, 그대와 천생연분이 있나이다. 다른 곳에 구혼하지 말고 저를 삼 년만 기다려 주소서.’하고 갔나이다. 그 낭자를 생각하니, 하루가 삼 년처럼 느껴지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삼 년을 기다릴 수 있겠나이까? 이로 인해 저도 모르게 병이 골수까지 깊이 들었나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상사병을 앓던 선군은 삼 년을 기다려야 숙영 낭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금기를 깨고, 숙영 낭자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지낸다. 그런데 선군이 부모의 명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였을 때, 숙영 낭자는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난다는 매월의 모함으로 자결하고 백상군은 임 소저를 선군의 새 부인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선군은 장원급제한 후 숙영 낭자가 보고 싶어 바빠 집으로 향한다.

이에 상공이 기쁜 얼굴로 한림에게 이르기를,

“너는 얼굴이 두목지처럼 우아하고 풍채도 뛰어난데, 이제 한림학사라는 벼슬까지 하게 되었도다. 너 같은 대장부가 어찌 한 부인만 둔 채 세월을 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널리 어진 낭자를 구했는데, 이 고을 임 진사 댁 낭자가 천하의 미인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임 진사에게 청혼하여 임 소저를 네 배필로 삼고, 바로 오늘 혼례를 올리기로 정했노라. 네 뜻은 어떠하냐?”

하며 백방으로 선군을 달랬다. 그러나 선군이 대답하기를,

“내려오다가 꿈을 꾸었는데, 낭자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나타나 가슴을 만지면서 말도 제대로 못 하더이다. 아무래도 낭자에게 무슨 연고가 있는 듯한데,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또한 저는 낭자와 맺은 언약이 소중하오니, 이 문제는 집에 내려가 낭자의 말을 들은 후에 결정하겠나이다.”

하고 길을 재촉하여 임 진사 댁 앞을 그냥 지나가려 하는지라. 상공이 한림을 붙들고 달래어 말했다.

“이것은 양반의 자식이 할 행실이 아니로다. 혼인은 인간의 대사라. 부모가 구혼하고 육례를 갖추어 혼인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거늘, 너는 어찌 이토록 고집을 부리느냐? 또한 네가 이대로 가는 것은 임 소저의 평생 대사를 그르치는 것이니,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로다.”

한림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재촉하니, 하인이 한림에게 여쭙었다.

“대감님의 말씀도 말씀이려니와, 만약 한림께서 그냥 가시면 임 진사 댁의 낭패도 매우 심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한림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그러나 한림은 그 하인을 꾸짖어 물리치고 백마를 몰아 달려갔다. 상공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뒤따라오더니, 집 앞에 이르러 선군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난 뒤에 낭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소리가 나더구나.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낭자에게 물으니, 낭자가 네가 왔다는 말은 하지 않고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더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라. 수상히 여겨 부모로서 약간 경계하는 말을 했더니, 낭자가 여차여차하여 죽었구나. 이런 망극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선군이 대경실색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낭자가 죽었나이까? 어찌 아버지께서 제게 이러실 수 있나이까? 저를 속이고 임 소저에게 장가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으십니까?”

하며 미친 듯이 중문으로 달려 들어가니, 동별당에서 나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문밖까지 들렸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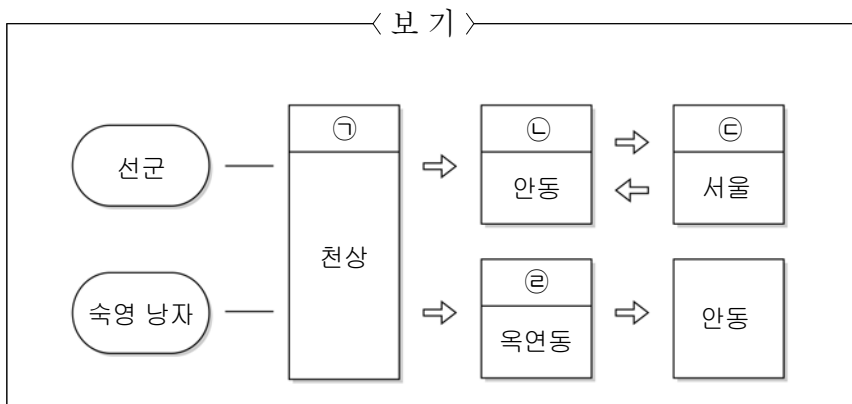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구체적 시대를 언급하여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를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인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의 행동을 회화화하여 부정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32. [A]와 [B]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리적 명분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충고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일을 언급하면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와 청자의 처지를 드러내며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청자의 신분이 회복될 것임을 언급하며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⑤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칠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인물의 이동 공간을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군’은 자신이 ㉠에서 ㉡으로 내려온 사실에 대해 열여섯 살이 되어서 듣게 된다.
- ② ‘선군’과 ‘숙영 낭자’가 ㉠에서 각각 ㉡과 ㉢으로 가게 된 원인은 동일하다.
- ③ ‘선군’이 ㉡에서 ㉢으로 떠난 뒤 ‘백상군’은 ‘숙영 낭자’를 의심하게 된다.
- ④ ‘선군’이 ㉢에서 ㉡으로 돌아오려 한 것은 ‘숙영 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 ⑤ ㉢에 있던 ‘숙영 낭자’가 ㉡에 있는 ‘선군’의 꿈에 나타난 후 ‘선군’은 ‘숙영 낭자’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린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숙영낭자전」은 천상계의 선관과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후 겪게 되는 재회, 열애, 결혼, 사별, 재생, 승천 등의 이야기가 작품의 표면을 이루고 있고, 봉건 사회의 규범과 유교적 도리에 맞선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욕구가 그 이면을 이루고 있다.

- ① ‘선군’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천상계로부터 귀양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 ② ‘선군’이 결혼할 당시는 부모가 구혼하고 육례를 갖추어 혼인하는 것이 유교적 도리였군.
- ③ ‘선군’이 ‘숙영 낭자’와 사별한 것은 ‘백상군’이 봉건사회의 규범에 따라 임 진사 댁에 구혼을 했기 때문이군.
- ④ ‘선군’은 ‘숙영 낭자’와의 사랑 때문에 부모가 청혼하여 인연을 맺은 임 진사 댁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것이군.
- ⑤ ‘숙영 낭자’가 ‘선군’에게 다른 가문에 구혼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은 천상에서의 인연을 지상에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군.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막걸리 놓고 냇가에서 물고기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해움도 ㉠ 임금님 은혜로다. <제1수>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미더운 강물결은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해움도 임금님 은혜로다. <제2수>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작은 배에 그물 실어 홀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세월 보내움도 임금님 은혜로다. <제3수>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삿갓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움도 임금님 은혜로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도롱이: 짚이나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나)

세상사 중에 처음에는 얼토당토않고 괴이하지만, 나중에는 진실인 것이 있다. 아마도 과일나무 접붙이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의 ㉠ 선친이 살아 계실 때였다. 과일나무에 접을 잘 붙이는 키다리 전씨(田氏)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친은 그에게 접을 붙이게 해 보았다. 정원에는 맛이 없는 배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전씨는 모두 톱으로 밀동을 잘랐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맛있다고 이름난 배나무를 구하여 몇 가지를 자르더니, 잘라낸 그루터기에 접목시키고는 찰흙으로 그곳을 발랐다. 당시에는 그것을 보면서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비록 접을 붙인 나무에서 싹이 트고 잎이 돋아났지만, 괴이하다고만 여겼다. 그러나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되고, 가을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제야 ‘나중에는 진실인 것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처음에 얼토당토않고 괴이하다고 여겼던 의심이 비로소 마음에서 사라졌다.

선친이 돌아가신 지 9년이 흘렀지만, 나무를 보거나 배를 먹을 때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항상 떠올랐다. 그래서 간혹 나무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면서 차마 떠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옛사람은 소백(召伯)과 한선자(韓宣子)의 일* 때문에 돌배나무를 베지 않은 채 잘 가꾸었다는 일화가 있다. 하물며 아버지가 소유하시다가 자식에게 물려준 것임에랴! 그 공경하는 마음은 베지 않고 잘 가꾸는 것에 어찌 비할 바가 있겠는가? 그 열매는 또한 꿇어앉아 먹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선친께서 나에게 이 나무를 물려주신 것은 아마도 내가 이 배나무를 본받아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라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록하여 경계로 삼는다.

－ 이규보, 「접과기(接菓記)」－

*소백(召伯)과 한선자(韓宣子)의 일: 주(周)나라 때 소백(召伯)의 은덕에 감화된 백성들이 그가 쉬었던 돌배나무도 차마 베지 않았다는 고사. 노나라 계무자는 노나라의 예법을 칭찬한 한선자가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칭찬하자 한선자의 은혜를 간직하고자 그 나무를 베지 않았다는 고사.

3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② 이상 세계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다.
- ③ 속세를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를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6. <보기>의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의 각 수는 다음과 같은 짜임을 가지고 있다.

구분	구조 및 내용
초장	강호에 (A)이 드니 (B)
중장	(C)
종장	이 몸이 (D)도 (E)은혜로다.

- ① 제1수 ~ 제4수의 A에는 화자가 맞이하게 되는 계절이 드러나 있다.
- ② 제2수와 제3수의 B에는 자연 경관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③ 제1수와 제3수의 C에는 화자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제1수와 제2수의 D에는 초장과 중장의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 있다.
- ⑤ 제1수 ~ 제4수의 E에는 D를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로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 드러나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변의 인물이나 사물, 고사(故事), 일상의 경험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글쓴이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독자들에게까지 전달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다.

- ① ‘전씨’가 ‘이름난 배나무’를 구하여 ‘접목’시키는 것을 보고 글쓴이가 ‘터무니없다’고 여기는 것은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생각을 드러낸 것이군.
- ② ‘접을 붙인 나무’에서 돌아난 ‘싹’과 ‘잎’은 글쓴이가 ‘괴이하다고 여겼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소재로 사용된 것이군.
- ③ ‘소백(召伯)과 한선자(韓宣子)의 일’이라는 고사(故事)를 제시하여 아버지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군.
- ④ 글쓴이가 ‘배나무’를 통해 세상의 이치에 대해 얻은 깨달음은 ‘잘 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라’라는 것이겠군.
- ⑤ ‘배나무’와 관련된 경험을 ‘기록하여 경계로 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3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몸에게 ㉠은 고마움을 느끼는 대상이고, ㉡에게 ㉡은 그리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② ㉠ 몸에게 ㉠은 인식이 바뀌는 대상이고, ㉡에게 ㉡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③ ㉠ 몸에게 ㉠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고, ㉡에게 ㉡은 인식이 바뀌는 대상이다.
- ④ ㉠ 몸에게 ㉠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고, ㉡에게 ㉡은 그리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⑤ ㉠ 몸에게 ㉠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고, ㉡에게 ㉡은 고마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히
불어 오라

복사꽃 살구꽃
화안한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 꽃구름
화안한 속에

꽃가루 흩뿌리어
마을마다 진한
꽃 향기 풍기여라

치위*와 주림에 시달리어
한겨우내- 움치고 떨며
살어 나온 사람들.....

서러운 애기
서러운 애기
다아
까맣게 잊고

꽃향에 꽃향에
취하여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쏟아지게* 하여라

나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 박두진, 「꽃구름 속에」 -

*치위: 추위.

*쏟아지게: 쓰러지게.

(나)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흔들만 깜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곽재구, 「새벽 편지」 -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 시상은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가)는 고달픈 현실을 견뎌 온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는 고달픈 현실에 직면해 있는 화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상의 전개는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① (가)에서 ‘서러운 애기’를 ‘잊고’ ‘꽃향에’ ‘취하여’ ‘쏟아지게 하여라’는 것에서는 시적 대상이 지나온 시간을 잊고 ‘꽃구름 속에’ 안기기를 바라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② (나)에서 ‘이 세상’에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는 것에서는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군.
- ③ (가)에서 ‘한겨우내’는 시적 대상이 견뎌 온 고달픈 현실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나)에서 ‘새벽’은 ‘별을 보’며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이군.
- ④ (가)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이 ‘서러운 애기’ ‘다아 까맣게 잊’기를 바라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군.
- ⑤ (가)에서 ‘마을마다’ ‘꽃가루’가 ‘흩뿌’린다는 것은 시적 대상의 고달픔을 부각하고 있고, (나)에서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들으려 하는 것은 화자가 희망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도시적 이미지가, ㉡에는 향토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에는 하강의 이미지가, ㉡에는 상승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동적인 이미지가, ㉡에는 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④ ㉠에는 애상적 이미지가, ㉡에는 환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⑤ ㉠에는 수직적 이미지가, ㉡에는 수평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누이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여겼던 죽은 어머니와 누이가 꼭 닮았다는 과수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몇 번이고 그 말을 부정한다. 아이는 누이가 만들어 준 인형을 땅에 묻어버리고, 당나귀에서 떨어졌을 때도 누이의 손을 뿌리치는 등 누이의 애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별나게 많은 첫가을 밤이었다. 아이는 전에 땅 위의 이슬같이만 느껴지던 별이 오늘밤엔 그 어느 하나가 꼭 어머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수많은 별을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곧 안에서 누구를 꾸짖는 듯한 아버지의 음성에 정신을 깨치고 말았다. 아이는 다시 하늘로 눈을 부었으나 다시는 어느 별 하나가 어머니라는 환상을 붙들 수는 없었다. 아쉬웠다. 다시 아버지의 누구를 꾸짖는 듯한 음성이 들려 나왔다. 아이는 아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창 가까이로 갔다. 안에서는 아버지가, 두 번 다시 그런 눈치만 뵈단 보라, 죽여 없애구 말 테니, 꼭대기 피두 안 마른 년이 누굴 망신시키려구, 하는 품이 누이 때문에 여간 노한 게 아닌 것 같았다. 좁한 일에는 노하는 일이 없는 아버지가 이렇도록 노함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었다. 의붓어머니의 조심스런 음성으로, 좌우간 그편 집안을 알아보시구레, 하는 말이 들려 나왔다. 이어서 여전히 아버지의, 알아보긴 귀찮을 알아 봐! 하는 노기 찬 음성이 뒤따랐다. 이번엔 누이의 나직이 떨리는 음성이 한 번, 동무의 오래비아요, 했다. 이젠 학교 두 고만뒤라, 하는 아버지의 고향에, 누이 아닌 아이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누이가 호리호리한 키에 흰 얼굴을 한 청년과 과수노파가 살고 있는 골목 안에 마주서 있는 것을 본 일이 생각났다. 그때 누이는 청년이 한반 동무의 오빠인데 심부름을 왔다고 변명하듯 말했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저 모른체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누이 같은 여자와 좋아하는 청년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 청년과 누이가 만나는 것을 집안에서도 알았음이 틀림없었다. 지금 안에서 의붓어머니의 낮으나 힘이 든 음성으로, 애 년 또 웬 성냥 장난이가! 하는 것만은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 이복동생을 꾸짖는 소리리라. 요사이 차차 의붓어머니가 어렵고 두렵기만 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네를 골고루 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아이는, 동복인 누이의 일로 의붓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이 아버지에게보다 더 안됐다고 생각했다. 다시 의붓어머니의 조심성 있고 은근한 음성으로, 넌두 생각이 있잖디만 이제 네게 잘못이라두 생기면 땅속에 있는 너의 어머니한테 어떻게 내가 낫을 들겠니, 자 이젠 네 방으루 건너가그라, 함에 아이는 이번에는 의붓어머니의 애정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정말 누이가 돌아간 어머니까지 들추어내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가는 **용서 않는다고 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어디서 스며오듯 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왔다.

<중략>

누이는 시내 어떤 실업가의 막내아들이라는 작달막한 키에 얼굴이 검푸른, 누이의 한반 동무의 오빠라는 청년과는 비슷도 안 한 남자와 아무 불평 없이 혼약을 맺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결혼하는 날, 누이는 가마 앞에서 의붓어머니의 팔을 붙잡고는 무던히나 슬프게 울었다. 아이는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누이는 동네 아낙네들이 떼어놓는 대로 가마에 오르기 전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자기를 찾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는 그냥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누이가 시집간 지 또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별나게 빨간 놀이 진 늦저녁 때 아이네는 누이의 부고를 받았다. 아이는 언뜻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는 지난날 누이가 자기에게 만들어주었던, 뒤에 과수노파가 사는 골목 안에 묻어버린 ㉠ **인형**의 얼굴이 떠오를 듯함을 느꼈다. 아이는 골목으로 뛰어갔다. 거기서 아이는 인형 묻었던 자리라고 생각키우는 곳을 손으로 폈다. 흙이 단단했다. 손가락을 세워 힘껏힘껏 파냈다. 없었다. 짐작되는 곳을 또 파보았으나 없었다. 벌써 썩어 흙과 분간치 못하게 된 지가 오래리라. 도로 골목을 나오는 데 전처럼 ㉡ **당나귀**가 매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처럼 당나귀가 아이를 차지는 않았다. 아이는 달구지채에 올라서지도 않고 전보다 쉽사리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당나귀에게나처럼, 우리 널 왜 꺾엔! 왜 꺾엔! 하고 소리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뛸수록 아이의, 왜 꺾엔! 왜 꺾엔! 하는 지름 소리가 더 커졌다. 그러다가 아이는 문득 골목 밖에서 누이의, 데런! 하는 부르짖음을 들은 거로 착각하면서, 부러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굴렀다. 이번에는 어느 쪽 다리도 빠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꾀었다. 어느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돌아났다가 눈물 핀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 속의 별을 내물** 왔다.

- 황순원, 「별」 -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위주로 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 ④ 내부의 이야기와 외부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그리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아 해매는 한 아이의 마음 속 방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에게 누이는 ‘별’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깨뜨리는 미움과 거부의 대상이다. 누이의 죽음은 아이가 누이를 그리운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만, 아이는 여전히 누이를 어머니와 같은 이상적인 존재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 ① ‘수많은 별을 뒤지고’ 있는 것은 아이가 그리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아이는 아이대로 그저 모른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이는 이상적 어머니의 모습을 지키려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용서 않는다고 절로 주먹’을 쥐는 것은 아이가 누이를 미워하는 마음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이가 누이를 그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눈을 감아 눈 속의 별을 내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가 누이를 이상적인 존재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군.

44. ㉠와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이를 잃은 아이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 ②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염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 ③ 미래에 대한 아이의 불안감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 ④ 누이를 질투하는 아이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 ⑤ 과수노파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45. 과제 수행을 위해 [A]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한 후 이를 촬영한다고 할 때, 각색의 과정에서 고려했을 내용과 촬영의 과정에서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S# 79. 집 밖(밤)
가을 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 카메라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 틸트 업*한다.
아이: (별을 보고 그리운 눈빛으로)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며 창문 가까이로 간다. 커다란 눈으로 방안을 지켜본다.

S# 80. 방 안(밤)
아버지: (화가 난 목소리로) 동네 창피하게 어린 것이 벌써 남자를 만나?
누이: (조심스럽게) 학교 다니는 친구의 오빠인데, 정말 좋아해요.

S# 81. 골목 안(희상, 낮)
골목을 지나다 누이의 모습을 발견한다. (인서트*)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한 청년과 다정하게 마주 서 있는 누이. 누이가 아이를 보고 당황하며,
누이: (변명하듯) 같은 반 친구 오빠인데, 심부름 온 거야.

S# 82. 방 안(밤)
아버지: (더욱 분노하며) 학교 당장 그만둬라!
누이: (흐느끼며)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상해요.
의붓어머니: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타깝지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혹시라도 네가 잘못된다면, 땅 속에 있는 네 어머니한테 어떻게 내가 낫을 들 수 있겠니? 이제 방으로 건너가거라.

*틸트 업(Tilt up): 카메라 앵글을 위로 올리면서 촬영하는 것.
*인서트(Insert):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

구분	계획 내용
각색	S#80과 S#82에서는 누이의 대사를 추가하여 누이의 감정이 아버지에게 직접 표현되도록 해야겠어. ①
	S#82에서는 의붓어머니가 이복동생을 꾸짖는 장면을 생략해서 누이와 아버지의 갈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②
촬영	S#79에서는 별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에 따라 카메라를 움직이며 촬영해야겠어. ③
	S#79에서 S#80으로 전환하면서 관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카메라의 시선을 방의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며 촬영해야겠어. ④
	S#81에서는 삽입 장면이 있는 점에 주의하여 아이가 목격한 장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겠어. 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